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 **대한민국 독서대전** 전주서 9월 1일부터 사흘간

## 이번 주말 ‘책의 바다’로 빠져들자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인문학 대표도시 전주에서 열린다. 29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한근수 대한민국 독서대전 총감독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의 향연인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을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전을 비롯한 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출판사 북페어, 추억 쌓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

김용택 시인 등 초청 인문사회학 강연도 펼쳐

‘책 오래 읽기 대회’ 등 책 읽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14개 시군 우수농산물 전시관 둘러보기

29일 진안 마이테미파크에서 열린 농업인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에 송하진 도지사와 이항로 진안군수 및 참석자들이 14개 시군 우수농산물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독서대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전국의 출판사 85개, 독서단체 40개, 독서경영 우수 직장 4개, 평생학습센터 110개 등 239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책의 향연으로 독서의 달 9월의 추억을 선사하게 된다.

또 노벨문학상 후보로 수차례 이름을 올린 고은 시인의 기초강연을 비롯해 강연, 행사, 공연 34개, 전시 12개, 체험행사 123개, 학술토론 5개 등 288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대전을 풍성하게 채우게 된다.

우선, 지역출판사와 지역서점을 포함한 전국 85개 출판사가 한자리에 모인 ‘출판사 북페어’의 경우 독서대전이 열리는 3일간 그림책 컬러링, 동화책 만들기, 출판사 초청 작가와의 만남, 미술체험, 동화 그림책 낭송회, 체험돌리판 이벤트 등 가을날 추억 쌓기 좋은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인문사회학 강연의 경우, 김원익 세계신화학연구소 소장과 김용택 시인, 정

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 이명수 칼럼리스트 부부, 광고홍보전문가인 박웅현 TBWA KOREA 대표,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인 강원국 전북대 초빙교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조현욱 번역가, 김서령 작가가 차례로 독서대전이 열리는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책 읽기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경기전에서 펼쳐지는 제12회 독서문화 한마당과 작은도서관한마당, 완판본문화관에서 진행되는 ‘목판인쇄 체험, 나만의 옛 책 만들기’,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책 오래 읽기 대회’, 전주 지역 동네서점 7곳에서 펼쳐지는 ‘동네방네 구석구석으로 떠나는 책여행’, 문화가 있는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책 읽는 버스’가 눈길을 끈다.

이밖에,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인문학 콘서트, 작은 북 콘서트, 시인·작가와

의 수다, 전주책 특강, 헌책 장터, 시 낭송, 한복 플래시몹 등 각종 강연, 공연과 한국의 꽃심, 전주가 권하는 책과 글, 대통령의 서재를 채운 16권의 추천도서 등 각종 기획·전시 프로그램, 한·일 도서관 관계자 국제 교류회, 지역서점 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술·토론행사도 열린다.

독서대전 개막이 임박하면서 각종 강연과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문의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서대전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신청 사전 접수 결과, 34개 강연, 행사, 공연 프로그램 모집정원 3,600명 중 95%에 육박하는 3,400명이 이미 접수를 마친 상태다.

대회를 총괄하고 있는 한근수 총감독은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는 우주가 인간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줬다고 했다. 바로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

는 능력’이다. 이 두 가지 힘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책속에 담긴 지혜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대화장을 찾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는 조선시대부터 서울·경기와 함께 출판문화의 이 끝이었던 완판본 역사도시이자 인구 대비 도서관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문주간을 선포한 인문학 도시”라며 “책의 도시 전주가 준비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통해 9월 독서의 달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인 ‘책’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개최되는 행사 장소와 각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독서대전 누리집(www.jkorea2017.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 국내 대학 중 역량 ‘최고’

전북대 창업동아리들, ‘창업유망팀 300’ 서호남·제주권역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차지

전북대학교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국내 대학 중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대회를 통해 입증했다. 전북대 창업동아리 4개 팀이 범부처 통합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7’의 예선 격으로 열린 교육부 ‘대학 창업유망팀 300’ 대회에서 호남·제주권역 1위부터 4위까지를 모두 휩쓴 것.

이에 따라 전북대 창업동아리인 Accompany(2팀장 공병화), 웨이시커즈(팀장 최재원), 펫브라더스(팀장 김동원), 아크컴퍼니(팀장 박현수) 팀들이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7’ 진출하기 위한 최종 평가에 진출하게 된다. 최종 평가는 전국 20개 팀을 대상으로 30일에 진행되며 이중 10개 팀만이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17’에 진출하게 된다.

‘도전! K-스타트업 2017’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중

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경진대회를 단일 브랜드로 연계 통합한 대회로 총 상금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창업 경연 무대이며 올해로 2년차를 맞았다. 전북대학교 창업교육센터는 ‘CB-IS NICE’ 창업교육시스템을 기반으로 창업동아리의 아이디어 인큐베이팅과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창업전문 멘토링을 지원했다.

그 결과로 지난달 교육부가 주관한 ‘대학 창업유망팀300’ 호남·제주권역에 8개팀이 선정돼 출전하게 됐고 1~4위를 모두 휩쓸며 호남·제주 권역에 부여된 ‘도전! K-스타트업 2017’ 본선 진출을 위한 최종 평가에 진출함으로써 목표적 역량을 발휘했다.

‘도전! K-스타트업 2017’ 통합 본선은 9월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11월 최종 대상이 선정된다. 본선 대회 전 과정은 TV 등을 통해 하반기에 방영될 예정이다. 대상에는 2억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정해은 기자



## 새만금 동서도로 공정 38%

새만금개발청은 29일 새만금 지역 간선 도로망의 중심축인 동서도로 건설 공사가 8월 말 기준 공정률 38%를 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착공한 동서도로(새만금방조제~김제시 진봉면, 16.5km)는 새만금 지역의 중심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도로로서, 올해 말까

지 공정 47%를 달성하고, 2020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날 새만금사업관리본부(군산 야미도)에서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예산 조기 집행 방안과 함께 공사 현장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 최정석 기반시설조성과장은 “계획된 기간 내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전북 선도기업 최고경영자 살롱
3면	- 환경부, 4대강 보수가 개방 검토
6면	- 사료용 옥수수 논 재배
16면	- 제21회 무주 반딧불축제

[www.firefly.or.kr](http://www.firefly.or.kr)

### 제21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 무주 반딧불축제

The 21st Muju Firefly Festival

## 2017.8.26(토) ~ 9.3(일)

무주군일원 | 지남공원, 등나무운동장, 남대천,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무주군의 특색 있는 “한국의 일과를 꿈꾸다”

### 2017 무주 남대천 물축제

8.26~27, 9.2~9.3 (4일간)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교육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전북관광진흥회 · 주. 전북 무주군 무주읍 회백로 15 · 문의, (063)320-5004-05